관세청 | 보도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6. 9. 8.(화) 13:30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외국 세관 공무원 초청 '제21차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전문가 연수회' 개최

- 아·태 및 남미 세관공무원에 한국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 전수

관세청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은 9월 8일(화)부터 14일(월)까지 8개국* 16명의 세계관세기구(WCO) 회원국 세관 공무원을 초청하여 「제21차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

*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라질,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인재원은 개발도상국의 관세행정 역량을 높이고 국가 간 무역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전자상거래, 원산지, 품목분류 등 다양한 관세 현안을 주제로 매년 연수회를 열어왔다.

올해 연수회는 관세청이 우수 기업에 세관검사 축소, 신속 통관 등의 혜택을 주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번 연수회는 이론에만 그치지 않고, 참가자들이 실무 전문성을 확실히 다질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우리나라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 기준과 심사 절차를 배운 뒤 실습을 진행하며, 실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 기업을 방문하는 현장 견학 시간도 갖는다.

특히 이론 강의를 마친 후 배운 심사 기법을 직접 적용해보는 실습 활동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을 받는 과정에서 겪는 실무적 어려움과 성공 사례를 공유하여, 민간과 정부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유선희 관세국경인재개발원장은 “앞으로도 전문가 연수회를 꾸준히 개최해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이 세계적인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외국 세관 공무원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우리 수출 기업들이 해외 현지에서 겪는 통관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인재개발과	책임자	과 장	김인순 (041-410-8530)
		담당자	사무관	김성식 (041-410-855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